

[사회]

성공 광주체전, 이렇게 준비하자



심판 판정 공정하게

지난 2005년 울산에서 열린 86회 전국체전 보디빌딩 경기장. 라이트헤비급에 출전한 광주시 대표 김명훈(36·광주시체육회)이 경연...

'페어 게임' 만들어야 '페어 플레이' 나온다

하지만 순위 발표가 30분 늦어지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울산시보디빌딩 협회장이 오고나서 순위 발표가 있었다.



정하고 엄격한 판정을 위한 노력을 할 계획이다. 심판들은 "심판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정도 중요하지만 16개 시·도의 지도자와 선수들도 심판의 판정에 대해 승복하고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체전이 끝나고 울산시 선수가 약물복용으로 금메달이 박탈됐지만 체전 규칙상 김명훈은 은메달에 머물러 두고두고 아쉬움을 금해야 했다.

41개 경기단체 중 모범적인 심판운영을 하고 있는 배구의 경우 지난해부터 16개 시·도 협회장에 공문을 보내 심판을 1명씩 추천받고, 나머지 10명은 심판분과 위원회에서 정해 총 26명이 심판을 맡는 등 오심과 판정시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주 불법 외국인 강사 적발 '후유증'

'방과후학교' 외국어 강좌 포기 확산

체류자격에 문제가 있는 원어민을 방과후학교 강사로 채용한 광주지역 학교들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해당 학교는 물론 적격강사를 쓰고 있는 학교에서도 원어민 외국어강좌를 중단하거나 중단을 검토하는 등 후유증이 일고 있다.

나머지 6개 초·중학교는 교장에 대한 행정조치와 형사처벌 등이 확정된 이후 새 강사를 구해 원어민 외국어강좌를 재개하기로 해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어긴 '체류자격상 문제가 있는 강사'였다고 해명하며 학부모와 학교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려 애쓰고 있다.



'광주 인권학교' 입학식. 5·18 기념재단은 3일 아시아 14개 국가 20여 명의 활동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 아시아인권학교' 입학식을 갖고 오는 20일까지 광주시 공무원교육원 등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탄산음료 연내 학교에서 완전 추방

내년부터 학교에서 급식 제공시 탄수화물·단백질·지방·비타민 등 각 영양소의 정확한 양을 제공하는 '학교급식영양표시제'가 시행된다.

각 영양소의 정확한 양이 제공되므로 학생들은 자기가 먹는 음식의 영양 정도를 알 수 있다.

장래인 등 증언대 보호자 동석 허용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판재)은 3일 '심신 미약자나 고통자, 어린이 등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보호자 등과 함께 앉는 것에 관한 내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Weather forecast for September 4th,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for various regions and a map of Korea.

News article titled '중국어선 불법조업 강력 단속' (Strict crackdown on illegal fishing in Chinese waters).

News article titled '추석 전후 강·절도 사건 예방 주력' (Efforts to prevent river and theft cases after Chuseok).

Advertisement for '전액국비수강생모집' (Recruitment of full-scholarship students) for various courses.

Advertisement for '7·9급 공무원' (7th and 9th grade civil servant exam preparation) by MDGOAL.

Advertisement for '9월대개강' (September start of classes) for English and other subjects.

Large advertisement for 'S the 1 요리학원' (S the 1 Culinary Academy) featuring a '대특강 개강' (Special Lecture Start) and various courses.